뉴시티교회 2026 표어

예수 따르는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

오늘의 말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5

아침마다 새로우니

예레미야애가 3:19~26, 오종향 목사

가을을 여는 주일

세상의 말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윤동주, 「새로운 길」(1938)

믿음의 말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지으셨기에,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1권 1장

주일 예배 순서

오전 11:00

묵도와 부름 — 인도: 오종향 목사

"우리가 우리의 길들을 살피고 시험해 보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어 올리자."
(예레미야애가 3:40-41, 우리말성경)

사도신경

찬양 —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 예수 열방의 소망 /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 주의 사랑을 — 찬양팀 (노영숙, 김성배, 이성은, 은원철, 문영식, 백수민)

합심 기도 — 나를 위해서 / 가족을 위해서 / 교회를 위해서

신앙과 삶 나눔

성경 봉독 — 예레미야애가 3:19~26 — 다함께 기립

설교 — 아침마다 새로우니 — 오종향 목사

결단의 침묵

찬송과 기도 — 오 신실하신 주

봉헌

안내

축도

헌금 계좌: 우리은행 1005-003-606016 뉴시티교회

예배 후 기도나 상담이 필요한 분은 오목사 또는 목양팀을 찾아주세요.

오늘의 말씀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19~26 (우리말성경)

19. 내 고난과 내 방황, 비통함과 쓰라림을 기억하소서.
20.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며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21. 그러나 내가 이것을 생각해 내기에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22. 여호와의 인애하심이 끝이 없는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23.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24. 내 영혼이 말한다.
"여호와는 내 유산이시니 내가 주를 기다립니다."
25.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과 찾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는 선하십니다.
26. 여호와의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다같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그룹 나눔 (예배 후 함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는 날마다 살아납니다."

---

1. 은혜

예레미야는 형편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 두는 것을 바꾸었습니다(3:21).
오늘 말씀 중 내 마음에 담아 두고 싶은 한 구절은 무엇이었나요?

2. 감사

다 무너진 것 같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침"을 보내 주신 경험이 있나요? 그때 무엇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했는지 나누어 보세요.

3. 반응

하루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이번 주 내가 정할 한 가지(말씀 한 장, 기도 한 마디, 가을 리딩지저스)를 정해 봅시다. 그리고 8월 한 달 품어 온 한 영혼의 이름을 가을에도 계속 붙들며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아침 루틴 — 하루의 첫 자리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도착한다면, 받는 사람도 아침에 나가야 합니다.

감사	성경읽기	예수님 묵상	일상 간구	태신자 중보
3분	10분	10분	10분	3분

교회 안내

- **환영과 안내**
  - 예배 후 점심 함께하는 교제시간이 있습니다.
  - 소그룹 모임이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 **9월 주일 예배: 《세상에서 만난 그리스도》**
  - 9/6: 폐허 위에 열린 하늘 (겔 1:1, 26~28)
  - 9/13: 나를 찾아오신 목자 (겔 34:11~16, 23)
  - 9/20: 다시 돌아오는 영광 (겔 43:1~7)
  - 9/27: 불 속에 함께 서신 분 (단 3:16~25)
- **9월 금요 예배: 《세상에서 드리는 기도》**
  - 9/4: 도시를 위해 우는 자 (겔 9:4)
  - 9/11: 내게 맡기신 한 영혼 (겔 33:1~11)
  - 9/18: 옷이 아니라 마음을 (욜 2:12~17)
  - 9/25: 추석 연휴로 모이지 않습니다.

  정기 모임 일정
  - 제직회: 8/30, 10/18, 12/20 (주일 13:15-14:30, 여리고 가는 길 스터디)
  - 조장 모임: 9/13, 10/11, 11/8, 12/13 (매월 둘째 주일)
  - 재정팀 모임: 매월 첫째 주일 오후 2:30
- **함께 만들어가요**
  - 가을 리딩지저스가 시작됩니다. 아침마다 말씀 한 장으로 하루를 여세요.
  - 교회를 위한 합심기도의 시간을 주일 오전 10:10에 가지려고 합니다.
  - 아이들을 함께 교육할 교사에 지원해 주십시오. 문의: 오종향 목사
  - 주일 아침에 밥을 함께 준비할 분들은 알려주십시오.
  - 리딩지저스와 주보를 주일 아침에 접는 사역에 참여해 주십시오.
  - 교회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는데 도우실 수 있는 분은 부탁드립니다.
  - 예배 시간에 짧은 신앙과 삶 간증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예배 순서

저녁 7:30

묵도와 부름 인도: 오종향 목사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6:5-6, 우리말성경)

사도신경

찬양

합심 기도

성경 봉독 다함께 기립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며
그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에 대해
한숨짓고 탄식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여라.”
(에스겔 9:4, 우리말성경)

설교 도시를 위해 우는 자 오종향 목사
(세상에서 드리는 기도 1)

찬양과 기도

축도

자유 기도

안내위원

이번 주일: 박민수 · 다음 주일: 윤재연, 이수민

설거지와 정리

이번 주일 청소정리: 조이 조 (우문주 강자은 김순영 김혜영 배지은 장수정)

8/30	우문주	9/6	김성배	9/13	청소년

오늘의 복음

죄의 값은 진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무게가 우리를 비껴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자리에 대신 서셨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해 돋을 때,
무덤이 비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새로운 아침이
그날 밝았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예레미야애가 3:23)

오늘의 찬송 이야기 — 「오 신실하신 주」

오늘 설교 후에 부르는 이 찬송은 토마스 치좀 (Thomas O. Chisholm, 1866-1960)이 썼습니다. 그는 극적인 사건을 겪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약해 평생 가난했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받아 살았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예레미야애가 3장 22-2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본문을 노래로 옮겼습니다.

> "제 수입은 한 번도 넉넉했던 적이 없습니다.
> 그러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실하심을
> 여기 적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저는 그 앞에서 놀라움 가득한 감사로 채워집니다."
>
> 토마스 치좀 (Thomas O. Chisholm), 75세에 쓴 편지에서

방문자 카드

뉴시티교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드를 작성해 주세요.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대화가 필요한 분,
기도가 필요한 분,
은혜가 필요한 분,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시는 길

혼자서는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공동체와 소그룹과 함께라면,
하나님을 풍성히 알게 됩니다.
멀리 갈 수 있는 강건함이 생깁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며,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히브리서 10:24-25 (우리말성경)

절취선

뉴시티교회 ____ 월 ____ 일 작성

이름

어떻게 오셨나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궁금해서, 등록할 교회를 찾으려고, 평안을 얻고 싶어서

어떻게 알게 됐나요?

지인, 네이버 검색, 구글 검색,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기타

전화번호

이메일

작성해 주신 카드는 예배 후 예배당 입구의
새가족안내팀에게 전해 주세요.